

INVESTORS OF INSIGHT

10월 경제 동향 및 전망	1면
지표로 보는 한국 경제	2면
지역경제 - 뒤처지고 있는 광주경제 ..	4면
경제 기사 풀어보기	6면
참~ 쉬운 경제 알기 - 통화량	7면
투자선행지수.....	8면

여러분의 재정목표달성을 위한
'Polaris'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 062) 431 - 6339
<http://www.kjec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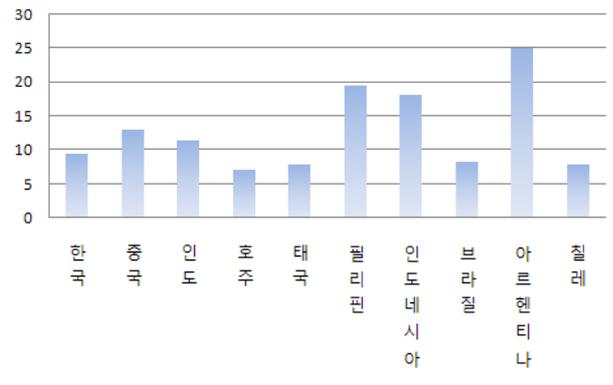
□ 경제 동향 및 전망

유동성의 힘! 신흥국 증시 급등
물가보다 경기부양을 택한 한국은행
점점 커지는 중국경제의 위상

10월의 주식시장은 지난달의 상승세를 이어가 1900선까지 올라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식형 펀드의 꾸준한 환매 속에서 힘을 잃어버린 기관과 증시를 외면하는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주식시장을 이끈 주역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이 활약한 곳은 우리나라 증시만이 아니었다. BRICs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 신흥국들의 증시 역시 외국인 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분기까지는 급증한 기업실적이 주가상승의 동력이 되었다면 현재는 실적에 대한 것보다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얼마만큼의 돈을 풀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유동성은 10조 달러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 수치가 2005년 말의 2배라는 점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본원통화는 8300억\$에서 2조\$로 증가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의 4배가 넘는 돈이 투입되었지만 미국 등 선진국 경제로 흘러가지 않았다. 대신 불안하긴 하지만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들로 흘러들어 갔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각종 자산가격을 끌어올린 주원인이 되었다.

주요 신흥국 증시 상승률



우리나라 역시 각종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부터 우려하던 것이 현실화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위해 급격한 환율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이번 달에도 금리를 동결시켰다. 금리동결 자체의 결과보다 물가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래의 최우선 목표를 잇고 정부가 해야 할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은행의 영향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물가상승을 용인함에 따라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고용 없는 성장만 주도하는 수출 대기업들의 이익을 용

호하기 위한 고환율정책과 저금리 정책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상승으로 인한 이중고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외에선 중국의 큰 변화가 있었다. 시진핑이라는 차세대 지도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단순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내수를 확장하고 부자국민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한 일환으로 위안화 가치의 상승 압력을 교묘히 용인하면서 자국 내의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어떠한 조짐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결정이었고, 이로 인해 한때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좀처럼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대안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중국이 긴축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금리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겠지만 날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놀라울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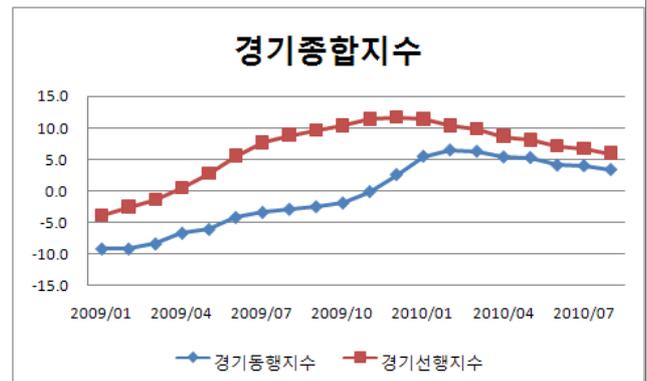
□ 지표로 보는 한국 경제

경기지표 둔화 여전

심상치 않은 물가상승

고개드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매달 발표되는 국내 경기지수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경기는 둔화되는 방향으로 크게 기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달 발표된 3분기 GDP 증가율도 하락하고 있어 경기둔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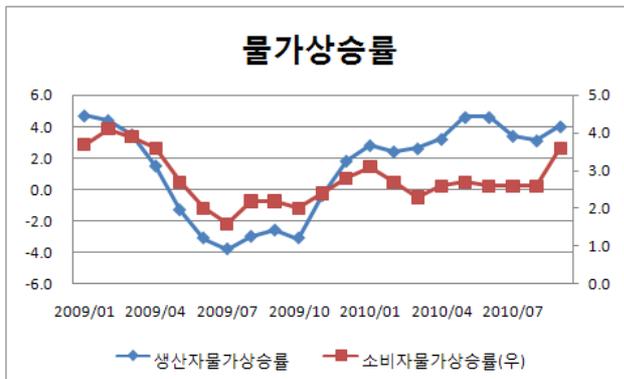


아래 그래프는 GDP증가율을 바로 직전 분기대비 증가한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2009년 4분기 0.2%, 2010년 1분기 2.1%, 2분기 1.4%, 3분기 0.7%로 하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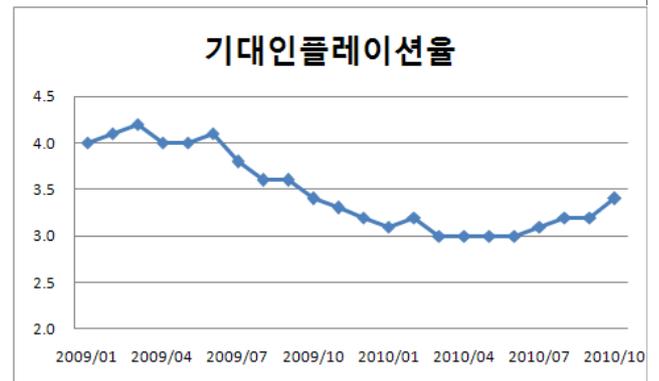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 1분기부터 급등하며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점차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환율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위축된 기업들의 상황이 반영되는 것이다. 상반기에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하반기에 둔화되는 모습은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 있어 보인다.

경기둔화와 함께 걱정스러운 지표의 움직임이 물가에서 보였다.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이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는 배추파동으로 인해 지난달 2.6%에서 3.6%로 경증 뛰었다. 한국은행의 물가목표가 3%±1%인 점을 생각하면 단번에 물가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그밖에 물가상승의 원인은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한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의 상승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달러가치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상승세를 보임(환율하락)에 따라 국내로 자

금이 유입되고 그만큼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물가가 상승하기 쉬운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마저 금리동결을 시행함에 따라 사람들은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즉,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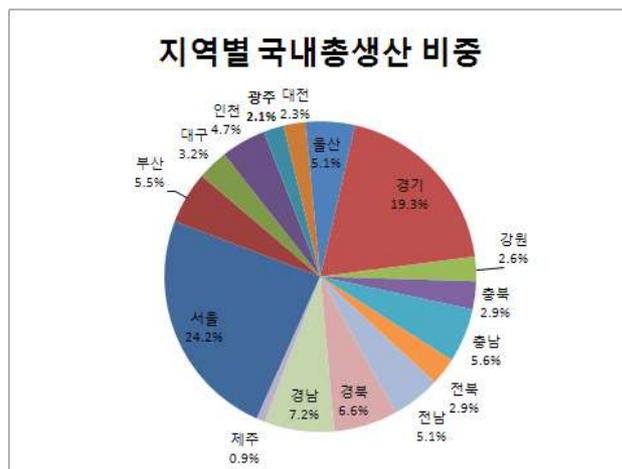
지금까지 보아왔던 자료를 정리하면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현상을 스테그플레이션이라 한다. 통상 경기가 상승하면 물가도 상승하게 되고 이를 금리인상으로 억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스테그플레이션은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침체되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스테그플레이션은 아직 가능성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물가상승 심리를 잡음으로써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에게는 평범한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정책시행이 요구된다.

□ 지역경제 둘러보기 - 뒤쳐지고 있는 광주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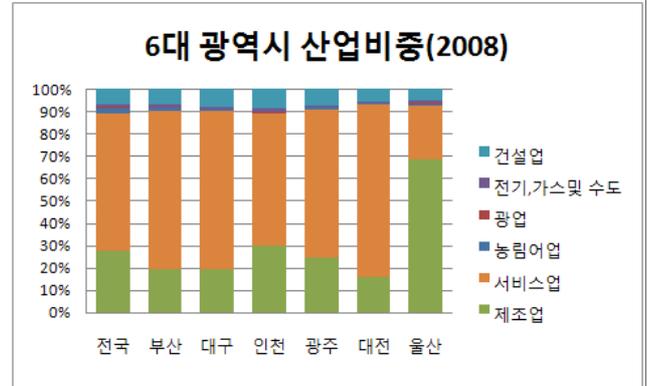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광주

지난달 호남지방통계청은 '2000년 이후 지역내총생산 추이'란 기획보도를 했다. 이 보도 자료에서 광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1조 7000억원으로 2000년 13조1000억원에 비해 65.6%(6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증가율(70.4%)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전국에서 차지하는 지역내총생산 비중도 2.1%로 2000년 2.2%보다 0.1%p 낮아져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 광주시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500만원으로 역시 같은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점점 광주의 경제성장이 다른 시·도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산업구조

광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뒤쳐지는 원인을 산업구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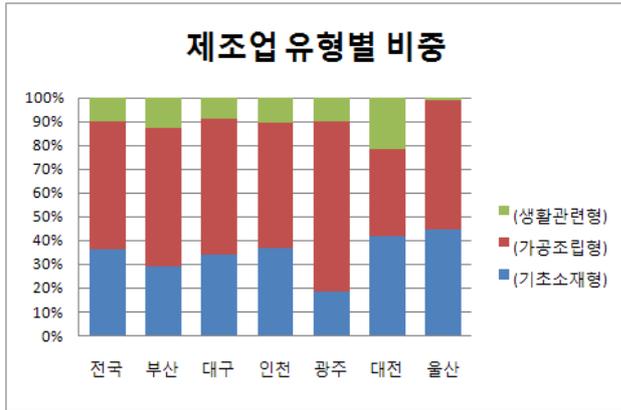


아래의 산업비중 현황을 보면 공업도시인 울산은 제외한 다른 광역시처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대도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와 현황을 살펴본다면 경제성장이 더딘 원인과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제조업

우선 생산유발계수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산유발계수는 수요 한 단위를 채우기 위해 생산을 늘릴 때 각 산업 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출액 단위이다. 다시 말해 한 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클수록 다른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고 그만큼 총생산액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광주의 지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24.4%로 자동차,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생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동차(2.71)와 디스플레이(2.63) 업종은 철강금속(7.31), 석유정제(6.85), 석유화학(8.05) 등의 기초소재업종 다음으로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업종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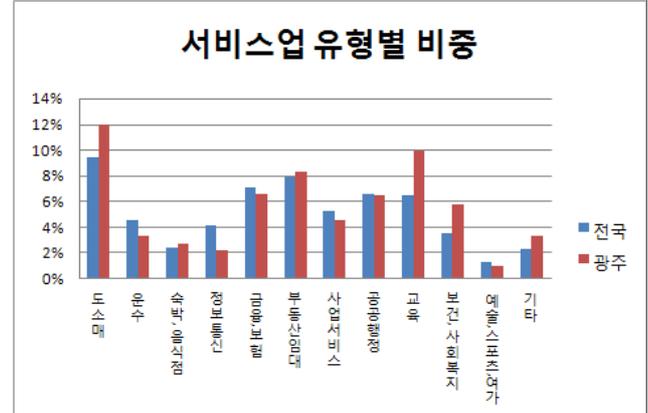
그러나 관련 하청업체들과 가전업종(1.54)은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단순 가공조립에 그치고 있다. 핵심부품과 기초소재형 제조업이 미흡하다보니 이들로 이어져야할 생산유발효과도 타 지역으로 새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쟁력 낮은 서비스업

광주의 지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66.2%로 높은 수준이다. 유형별 비중을 보면 도·소매(4.72)와 교육(1.06), 보건·사회복지(1.21), 숙박·음식점(1.38), 기타(1.26) 업종의 비중이 전국평균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반면, 운수(5.10), 통신(2.54), 금융·보험(4.11), 예술·스포츠·여가(1.38)부문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업종 내에서도 도·소매업을 제외하고 생산유발계수가 낮은 업종들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지역경제에 기여가 낮고 지역민의 소득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점과 기타부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보건·사회복지와 함께 경기변동에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광주시민의 고용 및 수입이 다소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생산유발효과 높여 지역소득 높여야

제조업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쏠려있는 단순 가공조립형에서 벗어나는 한편, 가공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소재형 제조업의 비중을 높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서비스 업종에서는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전문·과학기술(4.97) 업종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기술 및 부품산업과 기초소재형 제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운수업의 경우 지리적인 요건이 절대적이나 금융·보험업의 경우 이와 무관하고 지역경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 경제 기사 풀어보기

가계·중소기업 은행대출 문턱 높아질듯 [10월 05일, 한국경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담보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도 가계의 주택대출 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5일 한국은행이 16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은행들의 종합 대출태도지수는 6으로 전 분기 11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은행들이 대출에 적극적이라는 뜻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분기 9에서 4분기 6으로 떨어졌고 대기업은 3으로 변동이 없었다. 가계 주택자금은 13에서 6으로, 가계 일반자금은 6에서 3으로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 금리 상승 전망 등으로 중소기업과 가계의 빚 상환 능력에 대한 은행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은행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떼일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신용위험지수는 4분기에 전분기보다 4포인트 오른 20으로 작년 4분기(2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는 16에서 22로 상승했다.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2분기 9에서 3분기 16으로 급등한 뒤 4분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은행들의 이 같은 대출태도와는 달리 전반적인 경기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출수요지수는 중소기업이 3분기 13에서 4분기 25로, 대기업은 3에서 6으로 상승했다. 가

계 일반자금은 0에서 9로 높아졌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수요지수는 작년 1분기(31) 이후, 가계 일반자금은 작년 3분기(13)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가계 주택자금에 대한 4분기 대출수요지수는 3분기와 같은 6을 나타냈다.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달 2일부터 DTI 규제를 완화했지만, 수도권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빛을 내 집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과 가계의 자금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은행들이 부동산 경기 부진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출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경기가 둔화되자 대출을 많이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은행들의 연체율과 같은 건전성 지표들이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신중하게 대출하려는 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소기업과 가계의 대출수요는 오히려 늘어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제2금융권 또는 사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체적인 대출수요 증가에도 주택관련 대출 수요는 늘지 않아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자제하는 것과는 달리 예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들은 자금운용에 애를 먹고 있고 대출이자는 높게 유지한 채 예금이자만 낮추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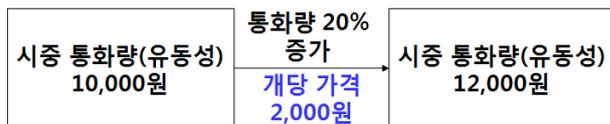
□ 참~ 쉬운 경제 알기 - 통화량(1)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야 건강한 사람이듯이 통화, 즉 돈이 적재적소에서 잘 유통되어야 그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통화량을 살피면서 현재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절해야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절한 통화량이란 어느 정도를 말할까요?

한 경제 내에서의 총생산이 5단위이고 이때 통화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1단위당 2,000원의 가격에 거래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GDP(총생산)가 20% 증가한다면 1단위가 더해진 총 6단위의 경제규모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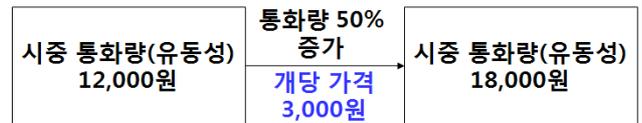
경제규모가 20% 커지니 통화량도 함께 20%가 늘어나야 1단위당 2,000원의 가격이 유지되면서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통화량이 10,000원에서 늘어나지 않는다면 증가한 나머지 1단위는 거래

를 못하거나 총통화량 10,000원을 6단위로 나눈 1,666원으로 가격이 하락한 후에 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열심히 일해 생산량을 늘려봤자 우리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엔 다른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6단위까지 늘어난 GDP(총생산)에 맞춰 12,000원까지 통화량을 늘려주면 되는데 실수로 18,000까지 통화량을 50%초과하여 늘려버린 겁니다. 총통화 18,000원을 6단위로 나누어보면 1단위당 3,000원으로 50%의 가격만 상승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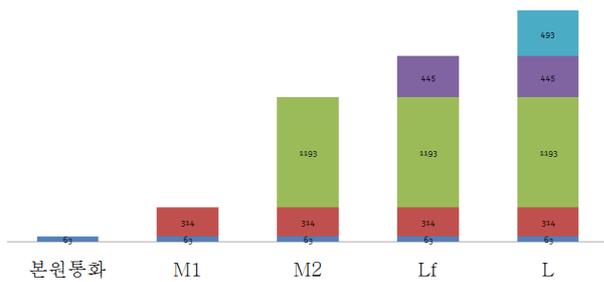
적절한 물가상승은 생산량 증가를 유인하지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면 쉽게 돈을 벌게 되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통화량이 적절하도록 조절하려면 우선 현재 시중에 어느 정도의 통화량이 풀려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본원통화, M1, M2, Lf, L과 같은 통화량 지표를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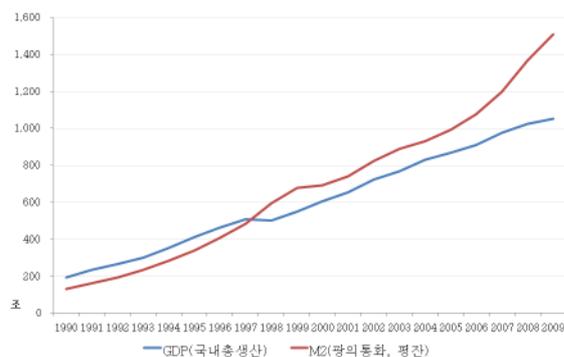
본원통화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와 같은 실제 현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냅니다. M1은 협의 통화라고 하며 본원통화를 포함해 수시

입출식예금이나 요구불예금과 같이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의 양입니다. M2는 광의통화로 M1과 당장은 아니지만 1~2일 사이에 현금화(2년 미만 정기예적금, MMF, CMA, 수익증권 등)할 수 있는 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M2가 통화량 지표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밖에 Lf는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장기에적금이나 보험준비금 등 금융기관에 장기간 머무는 돈까지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광의의 유동성인 L은 국공채, 회사채 같은 채권까지 포함한 지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GDP대비 통화량(M2)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통화량(빨강)이 GDP(파랑)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엔 통화량과 GDP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통화량이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투자선행지수

투자선행지수는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의 연구원들이 오랜 기간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만든 결과물입니다. 투자선행지수에는 국내 경기와 시중자금의 동향, 상장기업들의 실적 등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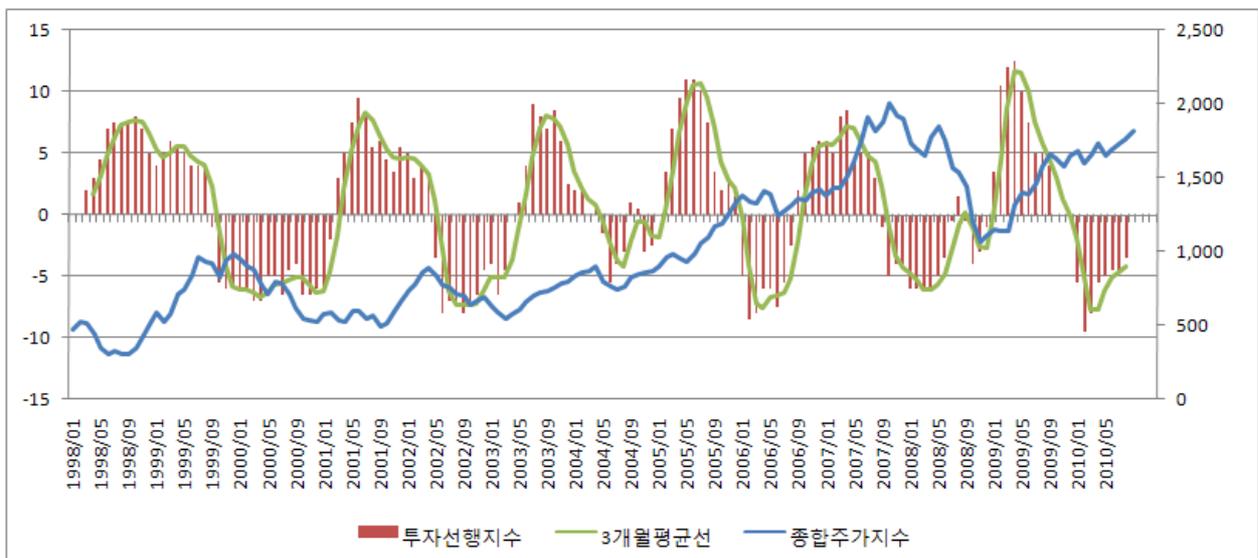
현재 주요 경기지표들은 둔화되고 있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곡물, 원자재, 주식시장 등 각종 자산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경제의 회복세 둔화를 막기 위해 다음 달 추가부양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버블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돈들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 상황이 그나마 나은 신흥국가들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경제는 좋지 않은데도 돈이 워낙 많아서 안전자산은 물론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도 떠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독자 여러분들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경기불황에 대비해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유동성이 주식시장과 상품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떠한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시던지 중요한 키워드는 '경제지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는 이 투자선행지수가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선행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막대그래프인 투자선행지수가 (-)에서 (+)로 전환되는 시점을 시장진입시점, 반대로 (+)에서 (-)로 전환되는 시점을 시장이탈시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산출된 투자선행지수는 올해 초 (-)로 전환된 후 -3.5를 가리키고 있어 적극적 시장진입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 투자선행지수



“광주경제문화공동체”가 경제문화공동체 “더함”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더불어 내년 하반기에 “더함 투자자문”을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증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2010년 연말에 관련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객관적인 투자정보 및 투자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한 단계 발전한 모습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현재와 같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광주경제문화공동체 경제강좌(5만원) : 기초과정

- 일 시 : 11월 15일 ~ 11월 19일 오후 3:30 ~ 5:00

◇ 광주경제문화공동체 경제강좌(5만원) : 심화과정

- 일 시 : 11월 08일 ~ 11월 23일 매주 수, 목, 금 오후 7:30 ~ 9:00

- 장 소 : 북구청 북개도로 20m 지점 (광주경제문화공동체 2층 강의실)

다음, 네이버에서 “광주경제문화공동체” 로 검색하세요

- 문 의 : 062)431-6339, www.kjecc.or.kr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인문학 산책

기간 _ 2010. **11. 8 ~ 11. 27** 늦은 7:30
(매주 2회 실시, 3주, 총6강)

장소 _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강의실
(북구청 맞은편 광주은행 북개도로 미미락식당 2층)

강사 _ 이현주 목사님, 덕명 스님, 윤수종 교수님, 김경례 연구원

주관 _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주최 _ 성공회 광주교회,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강좌명 _ 동양의 고전과 서양의 현대철학과의 대화

	강좌일정	강좌내용	강사
문향에서 깊을 찾다	첫째마당 11월 08일 월요일	무위자언의 길 : 노자	이현주
	둘째마당 11월 09일 화요일	어울림의 삶 : 장자	
동양의 고전	셋째마당 11월 15일 월요일	세상과의 소통 : 불교의 인연설	덕명
	넷째마당 11월 16일 화요일	과학과 섹슈얼리티	
포스트모더니즘을 말하다	다섯째마당 11월 22일 월요일	오르가즘과 상허명	윤수종
	여섯째마당 11월 23일 화요일	소수자운동과 미시정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61-42번지 (3층)
Tel. 062)431-6339 Fax. 062)262-6340
홈페이지 <http://www.kjecc.or.kr>